

넬 박 (Nel Pak)이라는 서예가는_먹에 반했다. 그녀의 작품은 먹을 쓰는 그림이 대부분이다. 2010년부터 넬 박은 오늘날 쓰이는 먹의 기원과 처음 만들어진 방법, 그리고 오늘날 먹의 다양한 사용을 찾기 위하여 일본과 중국 그리고 한국을 다녀왔다.

글쓰기, 서예, 그림 탁본을 위한 먹; 만년필 수집할 수 있는 물건로; 베틀은 원래의 목적대로 먹과 함께 쓰일 뿐만 아니라 장식품으로도 쓰인다. 붓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다. 붓으로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쓸 때 순서와 강약이 있다. 또한 종이에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다. 전시회 “먹의 많은 색”에서 이것들을 볼 수 있다.

그녀의 연구는스토펜 마스 (Steffen Maas)덕분에 세 종류의 출판물에서 읽을 수 있고 전시회에서도 볼 수 있다.

Kralen rijgen

Threading beads

구슬을 꿰다

먹/파스텔/종이에 있는 콜라주

126x71,5 cm, 2004

Nel Pak 넬 박

Steffen Maas 스테픈 마스

Papier Paper 종이

Inktsteen Ink stone 베틀

Inkt Ink 먹

Penseel Brush 붓

China 중국

Korea 한국

Japan 일본